

도난됐던 <삼국유사> 다시 세상에 나오다

문화재청·서울시경, 은닉자 검거 판매 목적으로 경매 출품 '덜미'

17년 전 사라진 보물급 <삼국유사>가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 그간 문화재를 은닉했던 매매업자가 검거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능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를 통해 도난문화재 <삼국유사>권제2 '기이편' 1책을 은닉해 온 문화재 매매업자를 검거하고 해당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매업자 A씨는 1999년 1월 25일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를 불법 취득했다. 이후 16년 간 은닉해 오다 공소 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올해 1월 경매시장에 출품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번에 회수한 <삼국유사>권제2 '기이편'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 파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판 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실제, 경매 출품 당시 감정가는 3억 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삼국유사>를 자신의 집 화장실 천장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16년간 숨겨왔다. 문화재 장물 취득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피해품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만료됐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상 도난된 문화재의 은닉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문화재가 발견된 날로부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도난 공고한 도난·도굴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불법이며, 선의취득에서도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문화재사범 공조수사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문화재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난됐던 회수된 <삼국유사>권제2 '기이편'의 정면과 뒷면. 은닉자가 애초 없던 표지를 새로 만들었다.

한암서 비롯된 禪門, 한국불교 이끌다

한국불교학회, 22일 '한암선문' 주제 학술대회

한국불교 근현대 선지식인 한암 스님에서 비롯된 오대산 한암선문의 위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오는 4월 22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한국불교 전통의 계승과 한암선문'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암 스님을 시작으로 탄허·현직·난암·보문·만화스님 등 후학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오대산 월정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선문의 위상을 되짚었다.

이날 윤정화 민족사 대표는 '한암 중원과 봉은사' 주제 발표를 통해 한암 스님의 봉은사에서의 활동과 오대산행 등을 조명했다.

윤 대표는 "한암 스님이 봉은사 조실로 있으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당시 사회, 문화계 인사들과의 교류"라며 "위창 오세창, 육당 최남선, 위당 정인보 등 지식인들이 자주 한암 스님을 찾은 것은 그의 한학적 지식 및 인덕과 덕망을 갖춘 선승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암 스님은 지적이고 정아하며, 정법안장을 갖춘 선승이었고, 역사·민족의식을 갖추고 있었다"며 "스님의 인간상과 승가상은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사표"라고 강조했다.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 출가에 영향 '삼교회통' 탄허 스님 출가에 영향 '보문선사' 생애 첫 조명 논문 발표

한암·탄허·만화 등 선지식 조명해

특히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한암 스님의 법제자인 보문 스님의 생애를 조명하는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근대 최고 선승으로 불리던 보문 스님을 뜻은 없었으나 그해 10월 15일 결제일에 구족계를 받으면서 한암 스님과 인연이 깊어졌다. 이후 선방의 관례에 따라 일체 경전을 보지 않고 3년동안 묵언 정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과 불연을 통해 화엄사상을 재구성함으로써 도가와 유가를 화통하고 역경불사를 완성하고 강연교육을 부흥시켰다"고 말했다.



오대산 월정사 전경. 한암 스님에서 시작된 선문은 근현대를 거치면서 오대산 일대를 불교 성역화하는 주춧돌이 됐다.

한암 스님의 깊은 학문과 넓은 인품을 흠모한 탄허 스님은 권중백과 차계남과 함께 1934년 9월 5일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했다"면서 "본래 탄허 스님은 승려가 될 뜻은 없었으나 그해 10월 15일 결제일에 구족계를 받으면서 한암 스님과 인연이 깊어졌다. 이후 선방의 관례에 따라 일체 경전을 보지 않고 3년동안 묵언 정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과 불연을 통해 화엄사상을 재구성함으로써 도가와 유가를 화통하고 역경불사를 완성하고 강연교육을 부흥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한암 스님의 법제자인 보문 스님의 생애를 조명하는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근대 최고 선승으로 불리던 보문 스님을 뜻은 없었으나 그해 10월 15일 결제일에 구족계를 받으면서 한암 스님과 인연이 깊어졌다. 이후 선방의 관례에 따라 일체 경전을 보지 않고 3년동안 묵언 정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과 불연을 통해 화엄사상을 재구성함으로써 도가와 유가를 화통하고 역경불사를 완성하고 강연교육을 부흥시켰다"고 말했다.

한화 화관과 오대산 성역화' 논문을

발표한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한암과 탄허, 만화로 이어지는 선문에서 오대산 월정사 등이 어떻게 증흥했는지를 살폈다.

고 교수는 "한암과 지암, 탄허와 만화에 의해 오대산은 전통불교를 복원하고 성역화의 기반을 다졌다. 이런 장대한 불사와 결사가 가능한 것은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을 계승하고 조술한 만화 스님에 의해서였다"면서 "만화 스님이 한암의 상원사와 탄허의 월정사를 아우르며 오대산을 성역화 할 수 있던 근거는 한암으로 대표되는 남자의 선풍 발양과 탄허로 대표되는 도인의 심품 상속의 발원과 서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나옹의 공부실질에 대한 한암의 답변과 관점'을, 탄허박물관 연구실장 문광 스님이 '탄허 백성과 동양철학'을,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현직과 산중일지'를, 진보삼 경기도박물관장이 '원보산과 상원·월정사관 서적'을, 원영상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사무국장이 '난암 유종묵의 수행교화와 일본행적' 등을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학문·실용 조화가 불교학 본연의 태도"

박태원 울산대 교수

1차 향상포럼서 주장

현재 한국 불교학은 서구에서 시작돼 일본으로 전해진 '박물관 불교학'에 불과하며 이를 넘어서는 '실용적 불교학'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4월 15일 열린 한국불교 향상포럼 첫 모임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박물관 불교학, 실용불학'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불교학의 연원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실용불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박 교수는 서구에서 시작된 불교학은 '불교'라는 전시 유물에 대한 서구인의 관념적 호기심의 산물인 '박물관 불교학'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다 보니 서구의 영향을 받은 현재 한국 불교학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해 계보와 체계, 양식과 차이를 이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같은 박물관적 관심은 유물에 대한 이해와 지식만을 요구할 뿐 현재의 실용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문헌 이해 그친 서구 불교학

박물관 관람자적 호기심 산물

사용 관심 둔 '실용불학' 필요

그러면서 박 교수는 "문헌·교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한 불교학자는 전 문지식의 '현재적 문제 해결력'을 모색하면서 현재 언어로 재기술하고 있는가. 또한 불교 본연의 문제해결력에 대한 요청을 그저 응용불교학이라는 부수 영역에 위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현재 학계에 날선 질문을 던졌다.

질문에 박 교수 스스로 밝힌 답이 바로 '실용불학'이다. '박물관 불교학'이 유물탐구적 학문이라면, '실용불학'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길에서 확보해 풀어보려하는 탐구의 영

역이다. 박 교수가 밝힌 실용불학을 구성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불교 본연의 문제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박물관 불교학을 활용하되 기존 불교학이 지닌 가치중립적 태도, 자폐적 자기완결, 문제 해결에 대한 무관심 등은 극복해야 한다"면서 "불교가 가진 문제해결력에 주목하면 문헌·교학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이런 실용불학의 문제해결력은 '학문적 깊이'에서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문적 역량으로 실용불학을 지향하려면 '자기의 생각'을 현재어에 담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헌학적 탐구와 실용가치가 결합되는 것은 불교의 본연의 태도"였음을 분명히 한 박 교수는 한국불교학은 '실용불학'이라는 낯선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불교적 문제 해결력에 집중하는 실용불학의 구성은 근현대 불교학의 속성으로 보면 낯선 길이나 불교 본연의 생명력을 복원하려면 걸어야 하는 길"이라면서 "서툰도 낯설더라도 한걸음씩 걸어가서 현재 한국불교가 바라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괘불탱' 가치·위상 책으로 담다

성보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조사 보고서 발간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대형불화 '괘불탱'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사)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해 대형불화 정밀조사의 성과를 담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대형불화인 괘불탱은 재료적 취약성은 물론 그 무게나 크기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아 다른 문화재에 비해 재해 위험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전하는 의식용 불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련에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조사·연구와 보존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에, 문화재청과 성보문화재연구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조계종 총무원과 협업을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전국 중요 대형불화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도 사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5권의 보고서는 △보물 제1260호 '마곡사 석가모니불괘불탱' △보물 제1278호 '북장사 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350호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보물 제1351호 '통도사 괘불탱' △괘불탱 관련 유물이다.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성과를 담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괘불탱 4점에 대한 보고서에는 문헌 자료, 크기와 무게, 보존환경 등 문화재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비롯해 정밀사진 촬영과 3차원(3D) 형상화를 통해 얻은 디지털 정보가 담겨있다. 또한 바탕지·배접지 재료에 대한 분석, 채색 안료 분석, 적외선·현미경 촬영 등으로 확보한 과학적 분석 자료도 수록됐다.

그리고 '괘불탱 관련 유물'에는 괘불탱을 내어 가는 데 필요한 괘불지주 86건 295점, 괘불대 18건 40점에 대한 현황이 포함됐으며, 현재 통도사에서 행해지는 괘불이운(掛佛移運, 괘불을 옮겨 모신) 의식도 함께 실어 불교의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 250W
 - 350W
 -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와트 1대, 소형 믹서 5채널 1대, 탁상형 쿼츠마이크 1대, 사운드용 마이크 스펙트럼 1대, CD기 1대,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YD-675 핸드 마이크 1대, 무선 핀 마이크 + 헤드셋 1세트,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헤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헤드셋, CD기, 쿼츠매, 마이크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 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자, 무선설비기사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